

Q10 | 산불의 계절별 특성은 무엇인가요?

A 우리나라는 산불조심 기간은 여름철을 제외한 봄·가을·겨울철입니다.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3~5월 봄철에 전체 산불의 55.5%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8.5%, 겨울에는 26.7%가 발생하고 여름철의 경우 약 9%를 차지합니다. 월별로 따져 보면 3월이 25.4%, 뒤를 이어 4월이 20.7%를 차지합니다.

산불은 3,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봄철에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절	산불특징
봄	봄철에는 한반도의 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이 머물게 되고 그 가운데 지점에서 편서풍이 생성됩니다. 이 편서풍이 역전층과 백두대간 사이의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고온건조해지고, 바람이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꽃이 옆으로 누우면서 연료물질에 열기를 쉽게 전달하고 가열이 빨라지게 됩니다. 또한 강풍을 타고 비화가 날아다니며 불길 이 빨리 번지고, 진화헬기 등 진화장비의 활용도 어려워 대형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규모 100ha가 넘는 대형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름	최근 10년간 여름철에도 마른장마와 폭염으로 인해 산불이 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발생한 산불(10년평균 50.3건)은 전체 산불에서 9%를 차지하는 등 산불의 연중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을	가을철은 가연성 물질, 즉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햇볕이 지표면까지 직접 비추면서 건조해져 산불의 위험이 큼니다. 탈 물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산불도 크게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가을은 봄철보다 바람이 덜 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 산불은 발생하더라도 크게 확산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	최근 겨울철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지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이 발생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겨울에 발생하는 산불의 비중은 29.6%로 10년평균(26.7%)보다 약 2.9% 많았습니다. 겨울철 산불위험도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제는 겨울철에도 집중적인 예방 및 계도 활동이 필요합니다.

※ 출처 : 산림청 산불통계